

경북형 자치경찰제 실질화에 대한 고찰

도자치경찰위, 성과보고회·정책포럼 열어 활동 방향성 모색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제2기 위원회의 성과를 보고하고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북형 자치경찰 실질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도민,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및 황명강·박승직 의원을 비롯해 자치경찰 관련 대학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지역치안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협업과 연대 기반 공동체 치안활동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도민체감 생활·교통안전 구현 등의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지역 치안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치경찰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2부 포럼에서는 발제에 나선 함요상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경북형 자치경찰 실질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도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현재 주민 참여 경찰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경북자치경찰의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직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치안 시책 추진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손순혁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역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시급하다”며 “도민을 위한 행정과 치안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사무를 적극 추진해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